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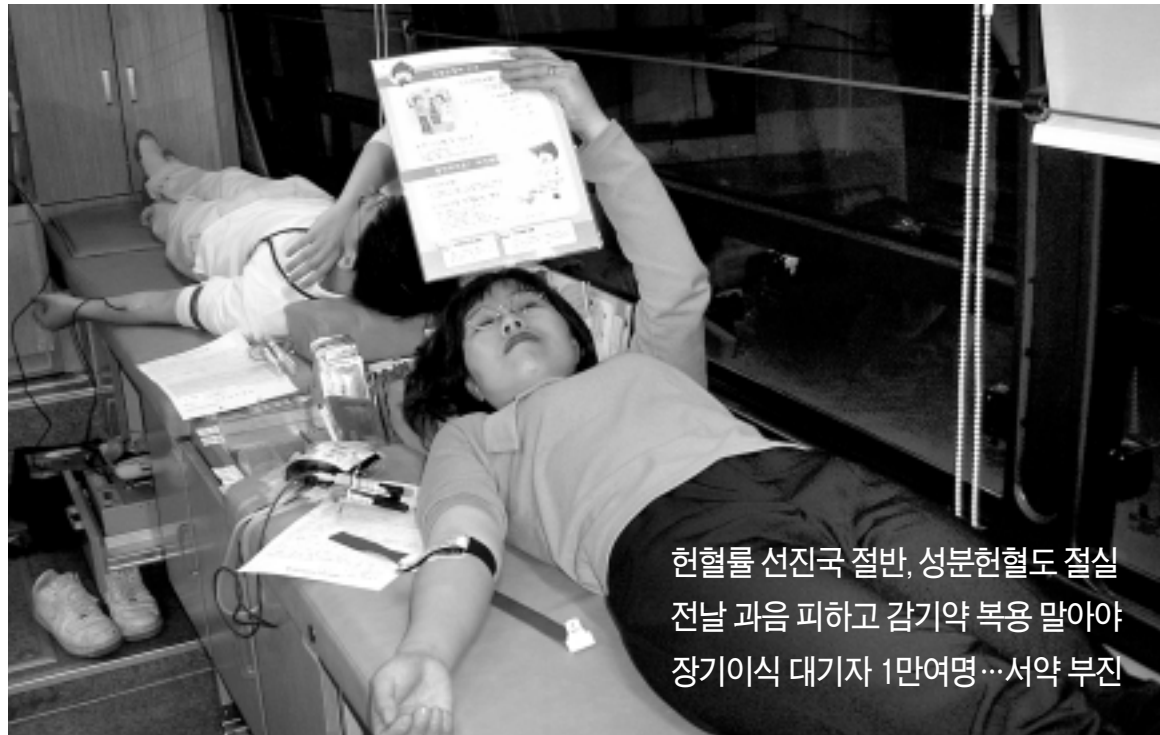
헌혈하고 '생명나눔' 실천하세요

“혈액 수급 비상”

4월 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중(34, 서울 구로구)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병원에서 “헌혈이 있어 출산 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요즘 혈액이 부족하니 미리 구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헌혈이 부족하다. 하지만 헌혈을 구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친척이나 이웃에 수소문 해봐도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을뿐더러, 단순히 헌혈증만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혈액을 주겠다는 ‘지정 헌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성 기근'에 시달리는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달 혈액수급 위기 단계인 '주의'가 발령되는 등 헌혈량 부족으로 응급환자 진료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혈액부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가 비상재혈법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 뿐이다. 대한적십자사가 3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헌혈자수는 지난 2003년 170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147만 명에 불과했다. 이는 헌혈률 6.69%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꺼져가는 생명에 새 희망의 불을 지필 수 있는 헌혈, 헌혈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 나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헌혈을 선진국 절반, 성분헌혈도 절반
전날 과음 피하고 감기약 복용 말아야
장기이식 대기자 1만여명...서약 부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김현)은 3월 16일 안성 갈로당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고귀한 사랑나눔 헌혈운동'을 펼쳤다. 연꽃마을 직원과 봉사자, 후원자, 지역민 등 100여 명이 동참해 헌혈을 하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 헌혈 및 조절모세포 기증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16개의 적십자혈액원과 99개 헌혈의 집, 헌혈 버스 등을 방문해 참가할 수 있다. 헌혈의 집과 혈액원 위치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bloodinfo.net)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헌혈을 하기 전날에는 과음·과로를 하지 않고 제때 식사를 한다. 헌혈 72시간 전에는 아스피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헌혈 전에는 신부종(주린듯함, 손전면허증, 청소년증, 등록헌혈회원증 등)을 확인하므로 지참한 후 방문한다.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혈액성분의 전체를 헌혈하는 '전혈(全血)'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혈구나 백혈구·혈소판 등 특정 성분만 채집해서 옮겨주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재주입되는 '성분헌혈'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6~8명의 헌혈 분량에서 혈소판 자체를 추출하는 것보다 한 명의 헌혈자 성분헌혈해서 얻는 혈장의 양이 더 많아,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 환자들에게는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할당 성분헌혈의 경우 30~40분, 혈소판성분헌혈은 60~9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등록헌혈제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헌혈제는 최근 1년 이내 헌혈한 혈액의 검사 결과가 정상인 사람이 회원으로 등록해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현재 22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혈액원과 헌혈의 집,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헌혈을 하고 받은 헌혈증은 생명나눔 실천본부(이사장 일민) 등의 단체에 기증하면 행편이 어려운 환우들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헌혈증을 모아 기증하는 '헌혈증 지원사업'과, 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 등 다양한 혈소판이 필요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혈소판 공여회원 모집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적혈구와 백혈구·혈소판을 만드는 조절모세포도 기증할 수 있다. 조절모세포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자세한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혈연간 기증은 20~55세의 건강한 사람으로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이면 가능하다. 우선 기증희망자의 혈액을 분석해 조직적합성형을 검사하고, 이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한다. 기증희망자와 유전적 특성이 적합한 환우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기증시술을 할 수 있다.

▶ 장기 기증 서약으로 생명나눔 실천

신장 이식이 유일한 희망인 급성·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신장 기증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가수가 이달 말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597명에 불과하다. 사장이 이렇다보니 비싼 수술비와 위험부담을 안고 '중국 원정 이식'을 시도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생전에도 기증이 가능한 신장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등을 앓지 않는 사람으로 조직적합성 검사를 거친 후 기증할 수 있다. 신장을 하나 떼어 기증하더라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사후 각막·시신을 기증하거나 뇌사 시 심장·신장·간 등의 장기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해놓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후·뇌사 기증은 실제 기증을 할 때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청 후 가족들에게 기증 여부를 알려두는 것이 좋다.

이 밖에 후원금 기부와 기증서약 등 '생명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 받을 수 있다. (02)734-8050 www.lisa.co.kr

여수영 기자 snoopy@buddhapia.com



인류 문화속의 茶

30. 티 클리퍼 레이스

동인도 회사가 차 무역을 독점하던 시기에 대량의 차는 대부분 배로 운반됐고 시간도 오래 소요됐다. 중국 광둥에서 런던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 4.5월에 만든 차는 배 출항 시기를 맞추다보면 6월경에 출발해 다음 해에 도착했다.

하지만 독점권이 폐지되면서 차 무역은 자유로운 경쟁시대를 맞이한다. 차 상인은 물론 선박회사들의 경쟁으로 배의 속력이 빨라지게 되었고 1840년 후반부터 클리퍼(clipper)라는 쾌속 범선이 출현하게 됐다. 영국의 레인디어 호는 광둥을 출발한지 4개월 만에 런던에 도착

1880년대 후반기의 1인당 차 소비량이 2kg으로 증가했고 홍차 붐이 일어났다. 또한 이색적인 '티 클리퍼 레이스(Tea Clipper Race)'가 유행하게 되어 종전에 여성들만이 선호 했던 차를 남성들도 선호하게 되었다. 티 클리퍼가 도착하는 날에는 좋아하는 클리퍼에 돈을 걸고 자기의 클리퍼가 해안가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제일 먼저 도착하는 클리퍼를 보면서 열광했다.

선박회사들은 더 빠른 클리퍼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1869년 스웨츠 운하가 개통되면서 티 로드(Tea road)가 5000마일이나 단축되었지만 기선만 통행할 수 있었다. 티 클리퍼로 제작된 범선이 한 번도 차를 실지 못하는 비

쾌속선 출현하며 차 빠른 운송 시대 열려

영국, 런던박람회 개최하며 국제 시장 주도

해 사람들에게 그 해에 만든 차를 맛 볼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묶은 차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차 애호가들에게 신선한 한 잔의 차 향기는 영국의 차 시장 뿐 아니라



쾌속선(Clipper, 런던, 보넬 갤러리)

선박회사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선박업자들에게 더 빠른 운송을 위한 쾌속선을 만들게 한 것이다.

미국은 오리엔탈호라는 크고 속력이 빠른 범선을 만들어 많은 양의 차를 싣고 97일 만에 런던에 입항했다.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신선한 차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됐다. 이렇게 되자 더 많은 차 애호가들이 생겼으며 어떤 차를 더 좋아하느냐가 붙어 상인들의 경쟁을 더욱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의 선박 업자들에게 클리퍼 제조에 열정을 쏟게 했다. 영국과 미국의 경쟁으로 많은 쾌속선이 출현하게 되었고 쾌속선의 질이 향상되어 차의 신선한 맛과 향기를 잘 보관하면서 빠르게 운송하는 것을 중요하게 되었다. 영국 내의 차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어

운을 맞이하는 커티 샤크(Cutty Sark)라는 클리퍼도 있었다. 이 배는 팔러 다니면서 이름도 바꾸는 신세가 되었지만 훗날 그 배를 아끼는 영국인에 의해 영국

으로 돌아와 지금은 그리니치 부두기에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차의 운송 경쟁은 차 품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차와 어울리는 문화를 형성하여 세계 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1884년 개최된 런던 만국박람회에서 품질이 좋은 차를 소개하면서 영국은 국제 차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게 됐다. 특히 시카고 박람회에서는 실론티 전시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상인들의 경쟁을 더욱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의 선박 업자들에게 클리퍼 제조에 열정을 쏟게 했다. 영국과 미국의 경쟁으로 많은 쾌속선이 출현하게 되었고 쾌속선의 질이 향상되어 차의 신선한 맛과 향기를 잘 보관하면서 빠르게 운송하는 것을 중요하게 되었다. 영국 내의 차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어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중진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쫓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우는 뜻은 있었으나 국내의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지지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정중함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우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언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마라질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경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히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이 역학입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화영(무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 구입금액 : 주머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